

거제시, 정당현수막 기준 협약 도시미관·불편 최소화 실천

경상남도 거제시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 정당들과 자율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거제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새마리아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 거제시지역위원회와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각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거제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실천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무분별한 설치 및 과도한 정치적 표현 자체 설치 기간 경과 시 자진 철거 △훼손·불법 현수막 발생 시 신속한 정비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시민 생활공간의 질서와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행정 주도의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정당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거제시는 협약 체결 이후에도 정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표현 수단이지만 시민 생활공간과의 조화 역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성숙한 정치문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정당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기자=박자연 기자newsdaily1@naver.com



김해시가 2026 김해독서대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김해시

독서대전 시민과 만들어요

김해, 슬로건·인스타툰 공모

경상남도 김해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책문화 축제를 위해 '2026 김해독서대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김해시는 29일까지 슬로건과 인스타툰 분야로 나눠 공모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년 4월 개최될 '2026 김해독서대전'을 시민이 직접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만들어가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해독서대전의 상징성과 방향성을 담은 공식 슬로건과 시민의 감성을 담은 흥보 콘텐츠를 공모해 축제의 메시지를 보다 뚜렷하게 담아낼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슬로건 △인스타툰 등 2개다. 슬로건은 김해독서대전의 취지와 주요 특징을 학제적으로 표현하는 참신한 문구여야 하며 인스타툰은 김해의 역사·문화 또는 김해독서대전을 소재로 한 4컷 이내 창작 그림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전 국민으로 제한이 없으며 접수는 김해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해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직접 축제의 방향성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실현적이고 개방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흥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박자연 기자newsdaily1@naver.com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표류 사업 재시동

4차 공모 재평가... 대법 판결 이후 첫 공식 절차 개발 방향 분기점... 늦어진 행정 책임론도 재점화

경상남도 창원시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4차 공모와 관련해 재평가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향방이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4차 공모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평가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그동안 사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서는 행정 공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심 가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반복된 공모 실패와 법적 다툼으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돼 왔다. 특히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계획만 이야기할 것이니"는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재평가 결정 자체를 두고도 해석은 갈린다. 일부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라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판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뒤따르고 있다.

4차 공모와 관련해 법적 판단을 받아낸 사업자 측은 이번 재평가가 기준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평가와 처분이 취소된 만큼 재평가 과정에서는 동일한 논란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4차 공모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평가 절차에 착수한다.

창원시는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SkyDaily 선정심의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평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부터 다시 진행된다. 평가 기준과 사업계획서는 당시 공모 기준을 적용해 선정심의위원회 후보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재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후속 협상 절차로 이어진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재평가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는 단순한 절차 이행을 넘어 오랜 기간 표류해온 개발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재평가가 실질적인 사업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창원=박자연 기자newsdaily1@naver.com

밀양시, 연말연시 돌봄 공백 막는다... 아동센터 점검

3곳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스마트 케어 서비스 실태 확인

경상남도 밀양시가 연말연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25일 밀양시는 전날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3개소를 방문해 돌봄·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족동 하늘사랑교실, 상남면 밀양지역아동센터, 내일동 자립지역아동센터 등 총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방학과 연말연시 기간 중 돌봄 공백 방지와 아동 안전 확보, 시설 운영의 안정성 점검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각 센터의 운영 현황과 아동 돌봄·학습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등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



밀양시가 24일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돌봄·교육 환경 운영 실태 점검 후 아동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도를 점검했다.

밀양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 돌봄과 교육 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보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장 가까운 보호망이다"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밀양=박자연 기자newsdaily1@naver.com

성주군 종합청렴도평가, 4년 연속 2등급 달성

노력 91.9점·외부체감 84.8점

강도 높은 시책·직원동참성과 군민 의견 청취·제도 개선 총력

경상북도 성주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으면서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이란 기록을 세웠다.

25일 성주군에 따르면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를 종합해 평가한 것이다.

특히 성주군은 반부패·청렴을 위한 자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부문에서 전국 평균(79.9점) 보다 높은 91.9점을 획득했으며 평가 기간 중 감점요인도 없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부패 취약분야로 지적 받았던 외부 청렴체감도는 전년도 76.0점에서 8.8점 상승한 84.8점을 획득하며, 전국 평균점수(81.0점) 보다 3.8점을 높았다고 밝혔다.

군은 4년간 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취약분야 개선에 집중하며 전 직원이 공직사회와 혁신을 위해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상북도 성주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으면서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이란 기록을 세웠다.

성주군

올해 추진한 시책은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행위 사전예방을 중점 목표로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부패방지 시스템 체계화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한 '청렴성주 휘슬도입·간부공무원 청렴진단' 실시·'청렴해피콜' 확대 운영·부패행위 위반 신고 모의 훈련'이다.

이어 △1차 시책 지속 추진 △반부패·청렴주간 및 '청렴서재' 운영 △청렴 토크콘서트' 및 '청렴소통간담회'를 통한 직원 의견 청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지난해에 이어

성주=이찬희 기자chlee2@skye daily.com

함양군 "오래 머물다 가세요"

체류형 관광 본격화... 콘텐츠 확충 집중

경상남도 함양군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혜력을 불어넣는 체류형 관광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25일 함양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

터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체류형 관광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국관광공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이 반나절에서 하루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지역 내 소비 규모는 2~3배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군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관광객에게 머무를 이유를 제공하는 체류 중심 관광 콘텐츠 확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함양군이 내년부터 핵심 관광시설 이용객에게 지역 상품권을 환급해 추가 소비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체류 기간을 늘리는 전략이다.

체류형 관광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대덕저수지 산책 데레노 조성, 지리산 조망공원 전망대 조성, 세계 유산 남계서원 관광원화 사업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병영 군수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은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다"라며 "함양을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함양=박자연 기자newsdaily1@naver.com



함양군이 내년부터 핵심 관광시설 이용객에게 지역 상품권을 환급해 추가 소비를 유도한다. 함양 상임 설경.

함양군은 이리한 해마다 관광객에게 머무를 이유를 제공하는 체류 중심 관광 콘텐츠 확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주요 관광시설과 연계한 지역 상품권 환급 사업을 추진한다. 대봉